

고조선·한 전쟁

고조선의 마지막 전쟁

기원전 109년 ~ 기원전 108년

1 개요

기원전 109~108년에 있었던 고조선과 한(漢)의 전쟁이다. 한의 대군이 고조선의 왕도인 왕검성(王儉城)을 포위하고 양국 간에 치열한 교전이 이루어졌으나 오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결국 왕검성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성이 함락되었고, 고조선은 멸망하였다.

2 전쟁의 배경

고조선은 위만(衛滿) 시기부터 한의 외신(外臣) 지위를 획득하였다. 한은 건국 이후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집권 체제를 갖추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이민족들 또한 일원적 천하의 구성원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수단이 외신제(外臣制)였다.

위만이 정변을 통해 고조선의 왕이 되고 눈에 띄는 실력자로 부상하자 한은 요동태수(遼東太守)를 통해 위만을 외신으로 삼았다. 위만에게는 이민족들이 한의 국경을 침입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기는 한편, 이민족의 군장(君長)들이 한과 교섭할 때의 중개자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위만이 이끄는 고조선은 강력한 위세와 부를 얻을 수 있었다. 위만은 형식적으로 한에 신하의 예를 갖추었지만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을 받지 않았고 독자성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右渠王) 대에 이르러 한과 주변국 내지 종족들 사이의 중개권을 지니고 있는 고조선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양국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였다. 『사기(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주변국들이 한나라의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관련사료](#) 한의 외신이면서도 주변국이 입조하는 것을 막는 조선의 행태를 한은 묵과할 수 없었다.

한 무제(漢武帝)는 기원전 109년 섭하(涉何)를 사신으로 보내 이러한 행태를 문제 삼아 경고하였으나 우거왕은 수용하지 않았다. 섭하는 귀국 도중 자신을 전송하던 고조선의 비왕(裨王) 장(長)을 찔러 죽이고 달아났는데, 무제는 이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요동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라는 벼슬을 내렸다. 이에 분개한 고조선은 군사를 일으켜 섭하를 살해하였고, 무제는 고조선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정벌을 지시하였다.

3 고조선 정벌군의 출정과 전쟁의 양상

한의 고조선 정벌군은 두 개의 군단으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우선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이 산둥(山東) 반도 쪽에서 7,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넜다. 그 다음 좌장군(左將軍) 순체(荀彘)가 5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요동 쪽에서 육로로 진군하였다. [관련사료](#) 고조선 원정군의 상당수는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모집한 것이었다.

전쟁 초기 군사적 우세를 점한 것은 고조선이었다. 순체의 부하인 졸정(卒正) 다(多)가 선제 공격을 하였으나, 고조선 군대에 크게 패하였다. 수군을 거느린 누선장군 양복은 해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왕검성 부근까지 이를 수는 있었지만 고조선군의 공격을 받아 일패도지하여 병사들을 모두 잃고 양복 본인도 산 속에 몸을 숨기는 처지가 되었다. 게다가 좌장군 순체의 본진마저 패수(溍水)에서 고조선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발이 묶이고 말았다.